

특필기고

# 지자체 비엔날레의 성공과 한계

## 2007포천아시아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해 지역 이기심 버려야

포천시가 세계로 열린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2005년 포천아시아미술제에 이어 2007 포천아시아비엔날레를 10월1일부터 1개월간 포천 반월아트홀 일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북부의 작은 도시로 인식돼 오던 포천시는 2선인 박은국 시장의 취임이후 문화예술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포천반월아트홀 건립, 아시아비엔날레 개최, 산정호수국 제조각집포지음, 포천석이별비조성, 포천영화마을 추진 등 비중 있는 문화정책을 도입하여 인근 도시 중 단연 돋보이는 예술지향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러한 포천시의 정책은 문화가 곧 국가간, 도시간의 경쟁력이 된다는 이치를 증명하듯 최근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문화정책 실행으로 포천시의 이미지 변화가 급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전망된다.

올해에 개최되는 2선 포천아시아비엔날레는 2005년 포천아시아미술제의 명칭에서 포천아시아비엔날레로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조직위원장으로 미술평론가 오광수씨와 전시 총감독에 미술평론가 오세권 대진대 교수가 선임되었다.

외형상의 틀은 국내 비엔날레의 격에 비추어 손색이 없다. 행사의 전반적인 기획이 지자체 예산배정의 문제로 조금하리만큼 늦게 추진되어 5월초에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였고 행사 실무를 대행할 기획사로 시티아츠사를 공모로 선정하였다.

전문 예술인, 대학교수, 시의원, 지역 단체장 및 시민으로 구성된 조직위원 및 기획위원들 모두가 시가지 촉박간의 극복을 위해 모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시행되는 시의

문화정책에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함에도 고질적 병폐인 수구적 지역 이기심이 발목을 잡으며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는 지자체 미술잔치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전시주제가 만남인 이번 전시는 2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며 메인전시인 본전시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0여개국의 작가 40여명과 국내작가 60여명이 회화, 조각, 멀티, 영상 설치 등을 반월아트홀 1.2층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전시장 외곽에서는 야외 조각전이 개최되며 국제학술포럼포지음은 미술평론가 윤우학 교수가 진행을 맡아 실시된다.

2005 포천아시아미술제의 주제는 길(Road)로 금산미술관에서 대행을 맡았고 평론가 윤진섭씨가 총감독으로 선임되어 전시, 퍼포먼스, 싱글채널비디오 등 3개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비교적 수준 있는 미술제를 마쳤으나 여러 가지 보완적의 여운을 남겼다.

올해 예정된 2억5천만원의 예산은 비엔날레 수준의 예산배정으로 는 최저 수준이지만 포천시의 재정 을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액수이다.

이렇게 어려움속에서 맞이하는 지역의 큰 국제 행사가 지역 미협지 부에서 행사전반을 맡으려는 마찰 에서부터 비롯된다. 국내외의 비엔 날레나 아트페어, 아트엑스포등 수 개 개의 행사를 비추어 볼 때 미술 협회나 지부 등에서 기획 및 주최 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술가 들은 비엔날레의 미협 주최에 절대 반대자세를 표한다. 이유는 대외적 권위의 상실 및 행사의 전문성 결 여와 지역 위주의 편견을 크게 꼽 는다. 가까운 예로 광주비엔날레나 부산비엔날레, 안산의 단원미술제

등도 주최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나 시 지자체가 맡는다.

포천의 경우는 2년전 창립기획 자체도 미협에서 발의를 한 것도 아니고 조직자체에도 관여가 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올해에는 조직위원으로 포천 미협지부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위촉되었고 기획위원회에도 7명중 2명의 포천미 협 회원이 포진되어 있어 지역을 예우한 시 당국의 배려가 엿보임 에도 행사 전권을 육박하는 지역 이기심이 조직 및 기획위원과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반복하는 기류 가 형성되었다. 모든 행사의 전권 은 총감독이 기획권을 지녔음에도 특별전의 경우 전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황적 수렁에 빠져든다.

7명의 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으로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포 천미협에서 활동하는 서예가를 연 로 구성되어 비교적 수준 있는 미술 장자의 예우에서 추천하였다. 기획 위원은 총감독과 홍익대학교수, 미술평론가, 미래도시 연구소장, 경기 북부작가회장, 포천미협지부장등 비교적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시감독도 포함되어 있어 기획위 원장의 역할을 회의의 진행 권위에 있으나 특별전의 경우나 한차례도 전제권이 결집 된적이 없다.

원래 3-4개의 부대 전시로 계획 예정인 특별전은 전시시설이 부족 하여 포천반월아트홀 앞에 위치한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임시로 사용 용에 하였으나 기본시설이 안된 건 물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별 한 기획구상이 없으면 본 전시마저 도 타격을 입는 위험 요소가 있다. 특별전은 지역작가를 배려 하기 위 한 참여 행사의 의미가 크다. 그러 한 이유로 총감독은 조직위원 및 기획위원으로 참여 하고있는 포천지 부장과 경기북부작가회장에 부

대행사를 기획 해주길 권유하 였고 경기북부 작가회에서는 장소의 공간성을 고 려하여 설치 및 영상위주의 DMZ-평화재단과 건물의벽을 포장하 는 200개의 깃발전을 제안서로 제 출하여 총감독이 검토후 시행 승낙 을 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기타 다른 행사는 제안서 제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틈새 잡기에만 힘 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미술제이고 누가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는가? 포천에서 행하는 사업이라고 포천 미협이 주가 되어 시행해야 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해외작가 초 대와 진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데 과욕을 내서는 안될 것이다. 지역 미협은 지역내의 회원전과 산지수 명전,포천현대미술제등 몇 개의 주 관 행사를 실시 해오고 있다.

개여있는 열린 사고로 순수한 포 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개인적 수익성에 눈길을 쥐서는 안된다. 자칫 포천 미협 지부장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도둑 제자나 수익성 사업 을 독식하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은 자제하여야 하고 이 기회에 미협의 전반적인 수익사업도 오픈하여 공 개적으로 입찰, 선정하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 할 때이다. 특히 지부 장 임기 중에는 미협과 진산미술관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임시로 사 용에 하였으나 기본시설이 안된 건 물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별 한 기획구상이 없으면 본 전시마저 도 타격을 입는 위험 요소가 있다.

특별전은 지역작가를 배려 하기 위 한 참여 행사의 의미가 크다. 그러 한 이유로 총감독은 조직위원 및 기획위원으로 참여 하고있는 포천지 부장과 경기북부작가회장에 부

대행사를 기획 해주길 권유하 였고 경기북부 작가회에서는 장소의 공간성을 고 려하여 설치 및 영상위주의 DMZ-평화재단과 건물의벽을 포장하 는 200개의 깃발전을 제안서로 제 출하여 총감독이 검토후 시행 승낙 을 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기타 다른 행사는 제안서 제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틈새 잡기에만 힘 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정호양  
올인아트파크  
올인아트센터장  
(지역미술협회)

## 韓國의 선비정신 · 74

### 김우항(金宇杭) ... 적선지가(積善之家)에 필유여경(必有餘慶)



리효중  
포천한신사 대표

**<전호에서 계속>**  
김우항(金宇杭)  
얼마 후에 돌아온 젊은이는 그의 어머니도 승낙을 하더라는 전 같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기뻐 하여 택일하고 혼수를 모두 내주 어서 성혼을 하였다. 그래서 두 집안이 화합하게 지내다가 권참 봉이 능참봉의 기한이 다 되어 처가 권숙을 데리고 고향인 안동 으로 돌아갔다.

이어서 아들 형제를 낳아 기르 니, 모두 재주가 뛰어나서 나이 십 칠팔 세에 과거에 응하여 모 두 진사가 되었다. 그들의 기쁨 은 한량이었다. 이러 는 동안에 김우항은 이조참판을 지내고 경상감사까지 되어 안동 땅을 돌게 되었다.

이 때에 어느 사람이 그를 보 였다고 칭을 하는 고로 김우항 이 기쁨을 버리고 개인적 수익성에 눈길을 쥐서는 안된다. 자칫 포천 미협 지부장이 기획사를 운영하는 관계로 도둑 제자나 수익성 사업 을 독식하려는 오해를 받을 행동은 자제하여야 하고 이 기회에 미협의 전반적인 수익사업도 오픈하여 공 개적으로 입찰, 선정하는 투명한 운영이 필요 할 때이다. 특히 지부 장 임기 중에는 미협과 진산미술관 시외버스터미널 건물을 임시로 사 용에 하였으나 기본시설이 안된 건 물구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별 한 기획구상이 없으면 본 전시마저 도 타격을 입는 위험 요소가 있다.

특별전은 지역작가를 배려 하기 위 한 참여 행사의 의미가 크다. 그러 한 이유로 총감독은 조직위원 및 기획위원으로 참여 하고있는 포천지 부장과 경기북부작가회장에 부

대행사를 기획 해주길 권유하 였고 경기북부 작가회에서는 장소의 공간성을 고 려하여 설치 및 영상위주의 DMZ-평화재단과 건물의벽을 포장하 는 200개의 깃발전을 제안서로 제 출하여 총감독이 검토후 시행 승낙 을 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기타 다른 행사는 제안서 제출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틈새 잡기에만 힘 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박에 내지 못하는 것 같기에 김 우항이,

“참봉,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 이 있으면 하시오.”

이 말에 권참봉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말씀하시는 황송하나 소인 의 내자가 항상 김 공에게 절조 보은 하려는 심정이 간절하였 던 바, 마침 여기까지 오셨으 나, 원컨대 내실까지 잠깐 들어 가셔서 고마운 치사를 받아 주 시오.”

권참봉의 말에 풀리어 내실로 들어가자, 진수선찬을 차려 놓고 권하는 것이 서울의 재상가의 예의보다도 놀라웠다. 이윽고 권 참봉의 내실이 그의 며느리를 데리고 나와서 치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우항을 다시 인도하 여 뒤뜰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 이다. 김우항이 그 곳에 이르니, 조용한 곳에 깨끗한 당(堂)을 짓 고 그 안에 노과 하나가 앉아서 무엇인가 외기를,

“김 별갑이 정승되게 하소서,

정승되게 비나이다.”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김우항이 권참봉에게 연유를 물으니,

“이것은 나의 늙은 장모가 김 별갑의 권고에 혼인을 한 후 오 늘날까지 김 별갑의 출세를 위하 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 모는 잠이 들기 전에는 항상 이 렇게 축원하는 것이 일과이옵니 다. 지금은 너무 늙어서 동서를 가리지 못하면서도 축원만은 잊 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이 러한 대답이었다.

이 말을 들은 김우항은 그 집 식구들의 지극한 정성과 보은의 뜻에 깊이 감사하였다.

과연, 그 후에 김우항은 계사 년에 우의정까지 올랐다.

#### 김우항(金宇杭)

1649년(인조 27)~1723년(경종3) 그는 재종(齎仲), 호는 갑봉(甲峯), 본관은 김해(金海), 청송부사 홍경(洪暉)의 자. 1669년 사마시에 합격, 1681년(숙종 7) 문과에 급제,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예조, 병조(兵曹)에 관리 역임. 회양부사, 경상감사를 지내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어서 도승지, 예조·이조참 판, 대사헌, 경기관찰사, 형조판 서, 병조판서, 좌참찬 역임. 1713년(숙종 39) 우의정에 올랐다. 김해김씨로는 조선조에 유일한 정승이었다. 관후(寬厚)하고 청백(淸白)한 명신(名臣).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 뮤지컬 이야기

### ‘칼잡이 맥(Mack the Knife)’의 쿠르트 바일(Kurt Weill, 1900~1950)

안방극장에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한 동안 시청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인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 그 첫 회를 보면 귀에 익은 재즈풍의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온다. 웨스트라이프(Westlife)가 부른 쿠르트 바일의 '칼잡이 맥(mack the knife)'이다. 그 드라마 첫 회를 봤던 시청자들만 쿠르트 바일의 인상적인 노래를 기억할 것이다. '칼잡이 맥(Mack the Knife, 원제: Die Moritat von Mackie Messer)'은 쿠르트 바일이 죽은 1950년을 시작으로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과 보비 다린(Bobby Darin)이 불러 더욱 유명해졌는데 재즈 스탠다드의 전형적인 노래로 일컬어지며 이후 많은 가수들과 재즈 뮤지션들의 애창곡이 되었다.

독일에서 출생한 쿠르트 바일은 히틀러가 집권을 잡은 후 프랑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바일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정든 독일을 떠나야 했다. 비록 1928년에 극작가이며 연출가였던 브레히트(Bertolt Brecht)와 함께 서사극 '서푼짜리 오페라(The Threepenny Opera)'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독일은 유대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미국을 모든 분야에

서 세계 최고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는데 특히 분산을 방지식을 풀 어 미국이 원자폭탄을 만들고 독 일을 침몰케 하는데 단조를 제공 했던 독일인 프리쉬와 파이얼스 도 히틀러에게 쫓겨난 유대인이 었다. 쿠르트 바일도 역시 1930년 대에 브로드웨이에서 커다란 공헌 을 했던 독일계 작곡가였다.

베를린국립음악학교에서 클래 시를 공부하던 1920년대 초반 유 명한 이탈리아의 부조니(Ferruccio Busoni)에게 사사 받은 바일은 현 악4중주와 교향곡 등을 작곡하며 그의 음악 인생을 클래식으로 시작 했다. 말러(Gustav Mahler), 쇤 베르그(Arnold Schoenberg), 스트라 빈스키(Igor Stravinsky) 등 세계적 인 클래식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숭회한 바 있지 만 궁극적으로 바일의 성향은 보 질 음악과 뮤지컬에 있었다.

바일의 뮤지컬 작품들과 노래 들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까지 독일 대중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큰 인기 를 얻었다. 바일의 가장 잘 알려 진 '서푼짜리 오페라(The Threepenny Opera)'도 이 시기에 발표되었는데 존 게이의 '거지 오페라(Beggar's Opera)'를 각색한 작품으로 원작에서 설정되었던 18세기 부랑자들과 도둑들을 1920년대 베를린 암흑가의 전형

적인 인물들로 재탄생시킨 작품 이었다. 바일의 음악은 매우 감상 적인 멜로디로 이루어져 있고 때 로는 거칠거려 해서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도 공연되고 있다. '마하고니 시(市)의 흥망성쇠(Rise and Fall of the City of Mahagony, 1930)'는 1927년에 발표된 동명의 작품을 개작한 것으 로 바일은 과감하게 미국의 레그 타이밍을 사용하였으며 재즈적인 멜로디도 사용하고 있다. 브레히 트는 정치적으로 막시즘을 신봉 하는 예술가들 중에 하나였다. 음악에만 몰두해 있던 바일은 정치 적인 견해차로 인해 이 작품을 마지막 오페라 대우소로 결별을 했다. 1933년 나치에 의해 추방되 어 1935년 미국에 정착한 이후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를 넘나들 며 연극과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특히 1937년에 '영원한 길(The Eternal Road)'을 위해 쓴 부수 음악 이 맨하탄 오페라 대우소에서 153회 공연이라는 큰 성공을 거 두고 사실상 미국 시민이 되었다. 바일이 미국에서 만든 작품 중 에 '거리의 장면 (Street Scene, 1947)'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던 미국 오페라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폴리처상을 받은 엘머 라이스(Elmer Rice)의 희곡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 '거리의 장면 (Street Scene)'은 그 해 쿠르트 바일에게 토니상(Tony Award for Best Original Score)을 안겨주었다.

이와 같이 일련의 작품들을 성 성시켜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인물 이 된 바일이었지만 독일에서는 그의 음악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금지되었다. 독일의 나치는 독일어로 되어있는 바일의 모든 작품을 비우고 시청각 자료를, 심지어 기록조차 없애버렸다. 바일의 부 멜로디도 사용하고 있다. 브레히 트는 정치적으로 막시즘을 신봉 하는 예술가들 중에 하나였다. 음악에만 몰두해 있던 바일은 정치 적인 견해차로 인해 이 작품을 마지막 오페라 대우소로 결별을 했다. 1933년 나치에 의해 추방되 어 1935년 미국에 정착한 이후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를 넘나들 며 연극과 영화음악을 작곡했다. 특히 1937년에 '영원한 길(The Eternal Road)'을 위해 쓴 부수 음악 이 맨하탄 오페라 대우소에서 153회 공연이라는 큰 성공을 거 두고 사실상 미국 시민이 되었다. 바일이 미국에서 만든 작품 중 에 '거리의 장면 (Street Scene, 1947)'은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었던 미국 오페라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폴리처상을 받은 엘머 라이스(Elmer Rice)의 희곡을 바탕으로



윤우영  
(대진대 교수, 연출가)

## Fantastic 영화천국-별천지스크린

오는 25일 26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

경기영상위원회와 부천국제판타 스틱영화제가 주최하는 '제2회 경 기도민과 함께 하는 fantastic 영화 천국-별천지스크린'이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내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 유권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 사는 국내 유명 영화 '미녀는 괴로 워', '아들' 및 애니메이션 '로보트 태권브이'를 비롯하여 2007 PIFan



## 어린이인형극 '사랑을 주는 나무'

8월28일부터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착한 사람들이 사는 작은 마을 에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 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기계들이 나타났는데 그 기계들은 저절로 밭도 갈고 밭도 짓고 설거 지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일을 할 필요 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편히 쉬 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기계만 구 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서 기계들이 모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움직

이기 위해 계속 나무의 꽃과 과일 을 따고 얼마 안 가서 나무는 앙 상하게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무가 시들어서 죽어 버렸을 때 에는 기계들도 모두 사라진 후였습 니다. 그제 서야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죽은 나무를 바라보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나무를 사랑했 던 아이들은 울면서 나무 밑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은 다시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움직일 수 있다면서 기계들이 모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계를 움직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풀 인형으로 꾸며진 인형극입니다.”

공연은 8월28일과 29일은 오전11 시, 오후7시30분 공연이며 8월30일 과 31일은 오전11시, 오후2시 공연, 9월1일은 오전11시, 오후2시, 오후4 시 공연이며 입장료는 6천원이다. 생후 24개월이상 입장이 가능하다. 김명복 기자 best114@paran.com



##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08)

### 약봉(藥峰)선생

「경이, 달서, 고리, 아리(慶李, 澹徐, 高李, 牙李)」라는 말이 전 해 오고 있다. 포천에서는 「경주 이씨」, 「달서 서씨」, 「고성 이씨」, 「아 산 이씨」를 빼 놓고는 행세하는 집안(가문)을 찾기 힘들다는 얘 기로 다시 말해서 포천의 4대 명 문가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약봉」이 별세 후, 300년간(인 조조~고종조) 문중에서 영의정이 8명, 우의정이 1명, 대제학을 6명을 배출한 명문가로 위세를 떨쳤으니 최고 명문의 자리는 굳 건하였다가 볼 수 있다.

약현(藥峴)으로 이사 약주, 약과 를 팔아 뒷바라지를 하며「율곡」, 「귀봉」문헌에서 공부를 시켜 등 과하고(1586년 선조 19년) 병조좌랑(1592년 선조 25년)으로 임진왜 란을 맞아 왕을 호종하고 호사사 (號召使) 황정욱의 종사관이 되 어 왕자 임해 순화군을 구출하는 계교를 낸 지략가였다.

로 서거하였다. 송우리에는「백락바위」가 있는 데 약봉 선생의 조상의 뜨거운 효심(孝心)의 전설이 우리를 감 동시키고 있다. 「병당지리」에 묘를 쓰면 큰아들 이 죽는다는 지관(地官)의 말을 듣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묘를 쓰 다가 백락을 맞아 죽을 뻔한 이 야기이다. 그 유서 깊은 바위는 깨진 틈 에서 향나무가 자생(自生)하여 효심(孝心)을 말하는 듯 서있다. 필자도 차를 타고 송우리「백락바 위」걸을 지나면서 전설을 듣던 게 어찌 같다. 「약봉」의 후손 중 에는 포천의 초대 재현의원 서정 희(독립운동가)님과 군수 서장석 씨(해방직후 초대 포천면장-농 협장) 6군단장을 역임한 서경석 중장 외에도 훌륭한 후손들이 명 문가를 자랑하고 있다. 필자연락처 02-932-2434

## 초대 漢詩

## 蘆嶺(노령)



朴東奎  
영북노인대학 학장

湖南蘆嶺冠吾東(호남노령관오동) 白鶴內藏八景通(백학내장팔경통)  
영남의 노령은 우리나라의 으뜸이요 백학 내장산은 대한의 팔경일세.

紅葉滿山書紙裏(홍엽만산서지리) 奇岩絕壁繪絳中(기암절벽회중)  
홍엽이 만산한 풍경을 문장으로 나타내고 기암과 절벽을 비단화폭에 그리고 싶구나.

寵姬美貌妖嬈態(총희미모요희태) 花柳投身烈女風(화류투신열녀풍)  
총희의 미모는 요희의 지태를 닮았고 비록 화류에 투신했지만 절개를 지켜 열녀가 되었다.

成樂公園祈禱--(성락공원기통일) 欲尋勝地友和同(욕심승지우화동)  
통일을 기원하고 공원을 만드니 이성을 천우들과 방문하고 싶구나.